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디지털 애니메이션	이름	박 XX
파견국가	헝가리	파견도시	부다페스트
파견대학	Budapest Metropolitan University	파견기간	2020.09.07~2021.05.31
귀국여부	귀국함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총 4 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일반계열과 예술계열로 나뉘어져 있고, 캠퍼스는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학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 작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자유롭습니다.</p>
2020-2 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Keleti 역에 있는 두 개의 아트캠퍼스를 다니면서 대면수업을 몇 번 진행하다가, 아쉽게도 11 월부터 락다운이 진행되어 그 이후로는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술수업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학교 등록 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셔야 합니다.</p> <p>Animation Technologies 1 - 2D 애니메이션 툴인 TVPaint 기초 수업으로 공 튀기기, 걸기, 뛰기, 점프와 같은 애니메이션 기초 이론을 다룹니다. 시험의 경우 매주 과제들을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p> <p>Digital Studies 3 - 한 시간 반씩 일주일에 두 번 참여하는 수업으로,, 3D 프로그램인 Zbrush 와 2D 프로그램인 Moho 를 배웠습니다. 두 수업 모두 매주 과제는 없었고, Zbrush 는 만들고 싶은 캐릭터 모델링, Moho 의 경우 툴을 이용하여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의 간단한 리깅이 기말과제였습니다.</p> <p>Drawing Studies 1 - 정물화, 누드 크로키 수업. 매주 모델분들을 관찰하며 드로잉을 했던 수업이었습니다. 별도의 준비물 필요없이 교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콘테, 파스텔, 물감, 오일파스텔 등을 사용하며 부담없이 다양한 시도를 해봤던 수업이었습니다. 시험의 경우 마음에 드는 드로잉들을 모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p> <p>History of Animation 1-애니메이션의 토대가 되었던 사진, 기술, 관련 인물들을 배우고, 미국, 캐나다, 유럽별로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발전</p>

	<p>스타일들을 살펴보았던 수업이었습니다.</p> <p>History of Art 3-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예술작품들을 살펴보는 수업입니다. 수업 기간 중 내주시는 과제들을 제출할 경우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p> <p>아트캠퍼스의 수업일 경우 중간과제, 중간고사 없고, 정규수업이 끝나고 그 이후 일주일간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Creative Weeks, 그 이후 프레젠테이션(기말시험)주로 이어집니다. 그 주에는 학기 중에 했던 과제물들을 학과 교수님들이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채점을 하는 것으로, 프레젠테이션주까지 마쳐지면 한 학기가 마무리 됩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교수님들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었고, 수업 문의 메일답장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p>
<p>2021-1 학기 수업</p>	<p>Animation Design(Picture and Sound) 2 - 사운드 수업과 단편 프로젝트로 나뉘어 진행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사운드 수업의 경우 어도비 오디션, Audacity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매주 사운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단편 프로젝트의 경우 교수님이 제시하는 찰리 채플린의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의 간단한 스토리라인을 토대로 새롭게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배경을 만들었으며, 1분 30초 경의 애니메틱을 만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수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한 수업 당 참여하는 학생 수가 5~6명 정도 되었고, 덕분에 피드백을 한 시간 동안 세세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p> <p>Digital Studies 4 - 3D 프로그램인 Max 와 2D 프로그램인 Moho 를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리깅,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과제물을 제출했습니다.</p> <p>Critical Studies on the New Media- 마셜 매클루언, 발터 벤야민, 튜어링 등 미디어 철학을 다루는 학자들의 견해를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시험의 경우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철학자 한 명을 골라 그의 생각을 요약하는 레포트 제출 또는 구두 시험이 있었습니다.</p> <p>History of Animation 2- 나라별로 독특한 애니메이션(내지 단편영상) 감독들을 골라 그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살펴보고 기법, 특징, 만든 의도 등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은 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입생들은 물론 교환학생들 또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꼭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학생 관련 간단한 QnA, 수업신청, 거주증이나 비자 관련 사항, 학생증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외 교환학생 관련 질문 사항은 학기 중에 erasmus@metropolitan.hu, SIC 로 문의할 시 당일 내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신입생들을 위한 멘토멘티 참여 프로그램 - 페이스북 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었고, 본교학생들, 학생팀과 함께 필드트립, 게임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p> <p>가을방학, 봄방학 투어 - 대학에 가을방학, 봄방학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부다페스트 안에 있는 관광지를 가이드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투어입니다. 박물관, 동물원, 국회의사당, 회쇠크 광장 등을 돌아볼 수 있고 학교 학생과도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p> <p>동아리-영화동아리, 사진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기초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동아리들의 홍보페이지를 보고, 저는 사진동아리에 참여하여 여러 곳으로 필드트립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전반적으로 한국과 기후가 유사하지만, 굉장히 건조합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입술이 다터서 고생을 했습니다. 보습크림 꼭 챙기시는 것 추천합니다. 비가 갑자기 내리는 경우도 허다했으니 작은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겨울의 경우 오후 4 시가 되면 어두워지는 것도 유의해주세요!</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현지는 안전한 편입니다만 노숙자들이 많고 소매치기를 조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기에 물리적으로 인종차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동양인 친구 중 한 명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노숙자가 있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CEU Dormitory 에 거주하였습니다. CEU 학교측에서 타학교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놓은 기숙사였기에 기숙사 내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 또한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본부까지는 버스와 도보로 10 분 정도, 아트캠까지는 버스, 지하철, 도보로 30 분 안팎이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1 인실을 선택했고, 공용부엌, 수영장 등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나름의 신식건물입니다. 이주일에 한 번씩 클리닝 팀이 방 안을 청소해주고 침대 시트를 갈아줍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식당 개별이용 (<input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직접 요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식사의 경우 기숙사의 카페테리아를 이용하고 직접 만들어먹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걸어가면 마트가 있어서 식재료를 구입한 뒤 공용부엌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포도 500그램이 3천원도 안하는 물가였기에 과일도 많이 사먹었습니다.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트램, 버스, 지하철 등을 쉽게 타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통학의 경우 버스를 타고 가까운 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부다페스트의 경우 트램, 버스, 지하철을 다 탈 수 있는 학생용 monthly pass 가 있는데, 발권을 할 시에 학생증에 있는 Student ID 숫자가 필요합니다. 지하철역, 버스 안에서 교통요원이 불시에 표와 학생증을 요구하기에 항상 학생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타지역으로 나갈 경우에 기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타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티켓을 발권하거나 버스기사에게 직접 돈을 내는 경우도 있기에 항상 잔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00 만원 (국제학생증 발급해서 할인가에 왕복권을 구입.)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 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았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43 만원 (삼성화재 유학생보험)
숙소		한 달에 305 유로(9 월~6 월)
식비		생활비 포함 약 300 만원
교통비		
책값		
기타 1		
기타 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p> <p>학교에서 국제학생증 발급하셔서 꼭 비행기표 할인받으세요. 헝가리 국내 박물관에서는 학생할인가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많은 혜택을</p>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거주증은 가자마자 신청하시고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신청할 시에 이민국 홈페이지 공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방문하세요. 관련 서류도 3 번, 4 번 확인하세요. 코로나 상황으로 이민국 방문 날짜를 예약해야 하는걸 모르고 있다가 일찍 가서 퇴짜 맞고 결국 보름 뒤에 예약해서 다시 방문했습니다. 체류 90 일 전까지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말에 신청 후 이민국에도 몇 번 방문했으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관련 통제가 느슨해졌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90 일을 훌쩍 넘기고서 거주증이 나왔습니다....)

밤늦게 통행하는 경우에는 간혹 경찰들이 와서 거주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거주증 가지고 다니세요!

12 월 24 일에는 오후 3~4 시부터 버스와 지하철이 끊깁니다. 공휴일의 경우 마트가 일찍 닫습니다. 구글지도에 나와있는 마트 클로징 시간은 공휴일일 경우 틀릴 때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만약 빈티지, 구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빈티지 매장들을 이용하세요. 헝가리는 한국보다 세컨핸드 빈티지 문화가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5000 원대로 괜찮은 옷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던 매장인 Humana 는 대대적으로 세일을 진행했는데 그 경우 1000 원 이하의 가격으로 질 좋은 옷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가신다면 Astoria 에 위치한 매장 추천) 그 외에도 백화점에서 대대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해서 좋은 옷, 신발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안마트가 굉장히 많으니 한국 음식은 되도록이면 적게 챙겨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 대신 젓가락은 꼭 챙기시는걸 추천.. 헝가리 젓가락 너무 비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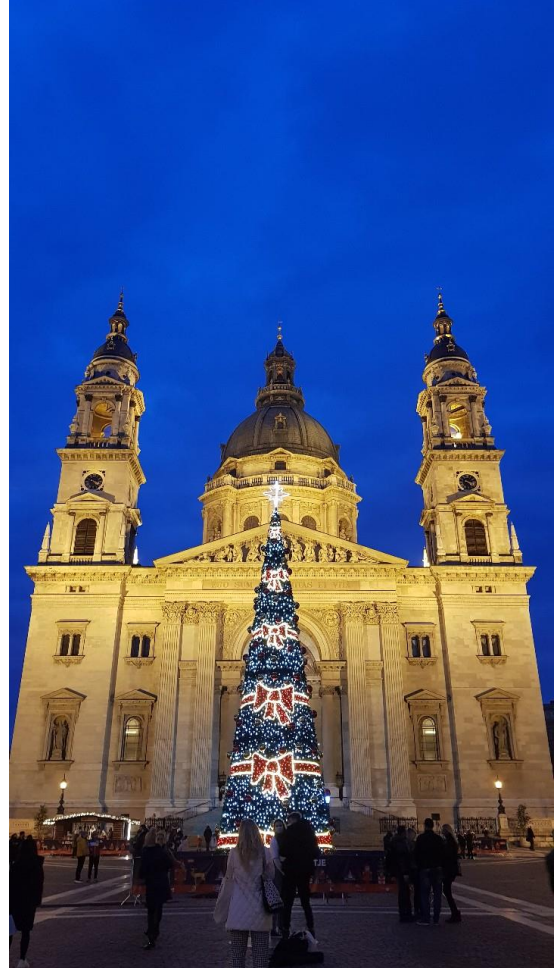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코로나 상황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것에 대해 많은 망설임이 있었으나, 이때까지 준비한게 아까웠고 지금 아니면 갈 수 없을거란 생각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나고 핸드폰 요금, 거주증과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으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대부분의 시간들을 기숙사 친구들과 보냈습니다. 겹치는 국적이 없었지만 다들 관심사가 은근히 비슷해서 다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토론을 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락다운이 진행되어 박물관 방문이나 마켓, 타국 여행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파견 기간 중 단 한 번도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했다는게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환학생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기에 수업도 널널하게 잡았고, 부다페스트를 많이 걸어다니면서 가게를 탐방하고 스케치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7. 사진보고서(6 장 이상)



사진설명
드로잉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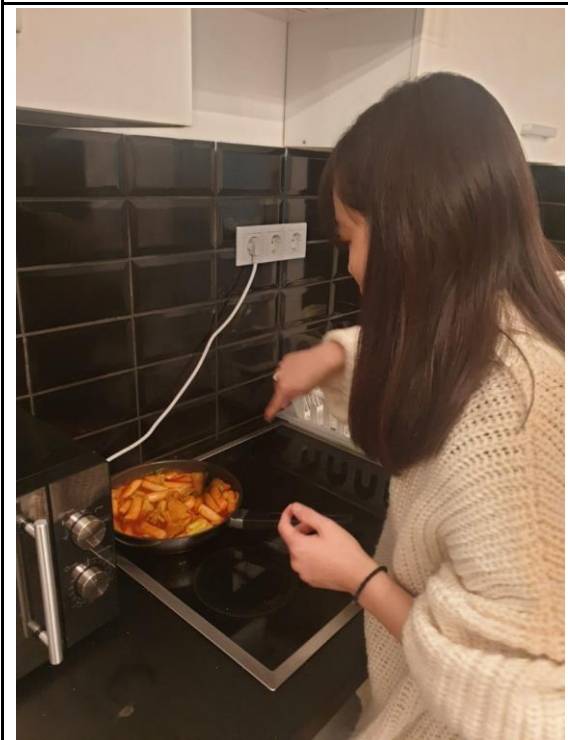
사진설명
크리스마스 때 St. Basil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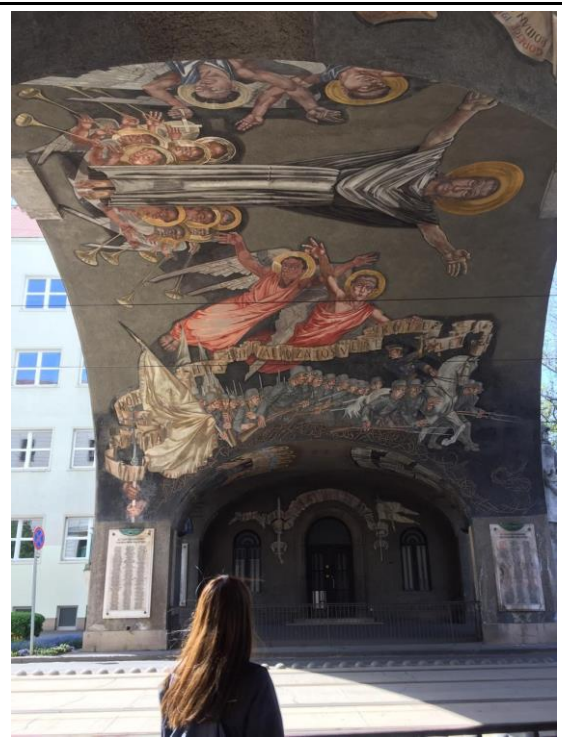
친구들과 Győr



신년파티 때 부엌에서



과친구들에게 떡볶이 요리해준 날



Szeged 로 여행